

우리도
베드로
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초판 발행 2010년 4월 24일
초판 인쇄 2010년 4월 24일

저 자 박옥수
발행인 김용환
발행처 (주)기쁜소식사
주 소 158-843 서울 양천구 신월2동 606-45
연락처 050-2244-9191, FAX 050-2244-9192
등 록 제2006-44호

ISBN 978-89-6443-002-6 03230

www.goodnewsbook.co.kr

우리도 베드로 처럼

박옥수 목사 지음

기쁜소식사

머리말

신앙은 왜 어려운가?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사 55: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만

우리 생각도 받아들이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해진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앙은 너무나 쉽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내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내 생각을 버림이 회개요,

하나님을 받음이 믿음이다.

신앙은 알면 너무나 쉽고 단순하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갖기 바란다.

기쁜소식강남교회 목사 박옥수

박옥수

우리도
베드로
처럼

차 례

머 리 말

1.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12
2.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38
3.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60
4.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88
5.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너져버린 베드로 112
6. 우리 판단이 어떠한지 말씀을 믿을 때 136
7.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62
8.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192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수없이 그물을 던졌고,
전날 밤에도 그물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했지만,
내 방법을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를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밋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누가복음 5:1~11)

신앙생활은 우선하는 삶?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는 착한 일을 하라고만 쓰여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말할 수 없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지만,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자꾸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말씀에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나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 난 후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속이 악하고 더러운데 그것을 억제하고 억지로 착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데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런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는데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잘 안 되니까 깨끗한 척이라도 하면서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죄악된 삶, 위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사단에게 속고 살

았습니다. 사단이 나를 어떻게 속였느냐면, 내가 매일 죄를 짓고 사는데도 ‘너,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새벽기도회 나갔잖아. 주일 예배 안 빠졌잖아. 교회에서 봉사했잖아. 넌 착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보다 머리가 좋잖아. 넌 잘났어.’ 하는 마음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9살이 됐을 때 모든 것에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잘해 보려고 해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서 소망을 다 빼앗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눈을 빌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봐왔던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착한 줄 알았는데, 내 중심이 얼마나 악하고 가증스러운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실수한 거야. 난 착한 사람이니까 앞으로 잘하면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정확하게 깨달은 사실은,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너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 그대로 살면 난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이다!’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마음, 음란한 마음을 억누르는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악한 생각을 억누르고 사는 정말 형편없이 더러운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도대체 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왜 마음에서 자꾸 악이 나오지? 왜 욕망이 일어나고 정욕이 일어나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마음에서 더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보다 잘된 사람을 이간시키고, 야비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진짜 나 맞아? 내가 이렇게 더러운 거야? 그런데 내가 왜 나를 착하다고 생각했지? 내가 왜 정직하다고 생각했지? 나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저는 그 전까지 나를 볼 만한 눈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직한 줄 알았고, 교회에 다니니까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보여 주셨습니다. 견딜 수 없게 매일 내 속에서 간섭해 주셨습니다. 내게서 한두 가지 실수나 악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내 속이 정말 더럽고 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았습시다만, 성경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대로 살면 진짜 더러운 인간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숨겨야 했습니다.

마음이 갖가지 죄악으로 더러우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가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들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웃고 친절하게 말하지만, 그때도 내 마음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음란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주를 섬긴다고 하는데도 쉬지 않고 악이 솟구쳤습니다.

‘무슨 이런 인간이 있어?’

저는 나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10살쯤 됐다면 바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선을 딱 그었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대로 살면 교도소에서 한평생 지내겠다. 난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 내 생각대로 살면 나는 망해. 내가 더럽고 음란하고 악하게 돼. 내 인생을 망쳐. 이제부터는 나를 믿지 말아야겠다!’

나를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음먹는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나환자 맞죠?

저는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종종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한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내 속에 이런 마음은 없었어. 내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 경험이 정말 많지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0년 말에 한 나환자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겠습니까?”

“아, 예. 가지요.”

일정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직전에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회 날짜를 정한 후, 그 목사님이 정색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예, 가지요.”

“아니,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예, 갈게요.”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들이 이 집회를 한 달 전에 계획했습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을 초청했지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한다고 성도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일주일 전에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서 갈 수 없다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집회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소리쳤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우리가 문둥이니까 더러워서 오기 싫은 거지!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게 뭐가 있어? 문둥이는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온 교회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문둥병에 걸려 서글픈데 그 목사님이 더 큰 슬픔을 주었다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 목사님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목사님, 꼭 오셔야 합니다!”

“저는 갈게요. 하늘이 두 쪽 안 나면 갈게요. 아파 죽더라도 가다가 죽을게요.”

목사님이 저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시내 큰 식당에 가서 갈비를 시켰습니다. 당시 한국은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갈비 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우리 가족은 갈비를 먹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큰 팬에다가 갈비를 잔뜩 올려놓고 굽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갈비를 대접 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신나게 갈비를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도 나환자인데, 입술이 약간 들러서 말씀할 때마다 침이 툭툭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 맛있던 갈비 맛이 짝 사라져버렸습니다. 나환자인 그분 침이 떨어진 갈비를 보니, 먹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졌습니다. 갈비는 많이 남았고 목사님은 자꾸 먹으라고 하는데, 입으로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내 쪽에 있는 침이 덜 튄 갈비만, 그것도 다시 굽고 또 뒤집어 구워서 몇 토막 먹었습니다. 그 귀한 갈비를 많이 남겨, 나오면서 뒤돌아보고 또 보고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한 형제가 “목사님, 나환자촌에 가신다면서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 갑니다.”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나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시험해 봅니다. 고름이 흐르는 손으로 달걀을 까서 줍니다. 그럼, 먹을 거예요, 말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흘 후면 집회가 시작되는데, 밤에 자다가 잠이 깡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환자촌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고름 묻은 손으로 달걀을 까서 즐까? 그럼 먹어야 할까?’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이 밀려들어왔습니다.

‘거기 가면 잠은 어디서 잘까? 밥은 어떻게 먹을까? 같이 먹자고 할까, 따로 먹으라고 할까? 같이 이불을 덮고 자자고 할까? 그럼 어

떡하지?’

밤이 깊었는데, 예배당으로 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마가복음 말씀이 마음에 딱 떠올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뭐라고 거기에 못 가?’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다시 기도 드리는데 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환자가 따로 있나? 너도 나병에 걸리면 나환자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환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나환자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내가 나환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나환자촌에 갔습니다. 집회를 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를 시작으로 일곱 개의 나환자촌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나환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목욕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환자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나환자 맞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나환자 맞죠?”

자기들과 너무 자유롭게 지내니까 그분들이 저를 나환자로 알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병은 3년 뒤에 드러난다며? 3년 뒤에 보고 알려 줄게. 지금은 아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나환자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주 느낍니다.

‘이건 내 마음이 아냐. 나에게는 이런 마음 없어. 박옥수 목사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야비한 인간이야. 박옥수 목사에게는 이런 마음 없어.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건 주님의 마음이야.’

지금도 화를 낼 때도 있고, 악이 올라올 때도 있고, 더러운 생각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옛날에 내가 전혀 갖지 못했던 마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 새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한없이 평안합니다.

제주도에서는 밀감이 많이 납니다. 제주도 중앙에 높은 한라산이 있는데,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군(南郡)과 북군(北郡)이 나뉩니다. 제주시가 있는 북군은 한라산의 그림자로 그들이 지기 때문에 날씨가 차고 일조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북군 밀감은 남군 밀감보다 맛이 덜합니다. 우리는 그냥 ‘제주 밀감’ 하고 먹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다릅니다. 남군 밀감과 북군 밀감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밀감 장사가 남군 밀감에 북군 밀감을 섞어 놓으면, 제주도 사람들은 남군 밀감만 정확하게 골라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맞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더럽고 추한 이진 내 마음이야.’

‘이진 내 마음이 아니야. 난 이렇게 선하지 않아. 난 이렇게 정직하지 않아. 이진 예수님의 마음이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느 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편지를 써내려가며 말했습니다. ‘이진 내 마음이 아니야.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아침

우리는 한 주간 베드로에 대해 성경 공부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데, 갈릴리 바다의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 과정과 마음의 상태를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대략 이야기를 적은 것 같은데,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마음이 베드로처럼 변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부터 베드로의 삶을 정확하게 관찰해 봅시다. ‘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이랬고, 이때는 이랬구나!’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이 이해가 되어 받아들이면 여러분 속에도 베드로 속에 일한 하나님의 영이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요?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빌딩 숲 속에서 살면 햇빛을 보기 어려워서 악한 생각도 다 없어집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정말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악에 끌리고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서도 죄 안 지은 척하고 선한 척해야 했지요? 아담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담의 자손이면 그럴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우리를 형편없이 몰아가네요. 당신만 그렇지, 우린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전날 밤 베드로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인데, 옛날에는 큰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갈릴리는 지름이 긴 쪽이 13km, 짧은 쪽이 12km인 둥근 호수입니다. 한편 호숫가에 게네사렛, 벳새다, 가버나움 등의 도시가 있고, 건너편에 거라사 땅이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위치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제가 본 갈릴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물가에 자갈이 깔려 있는데, 바지를 걷고 물 속에 발을 담가 보고 손도 씻어 보

있습니다. 예수님을 느껴 보고 싶었습니다. 호숫가에 비스듬한 언덕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날 밤도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슨 돈이 급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에 관여치 않고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빨리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아내 신발이 다 떨어져서 신발을 사려고 바다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날 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실망했습니다.

‘아, 고기잡이 못 해먹겠네! 어떻게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 있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아침이 되어 그물을 정리했습니다.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성큼성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로 쭉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배를 바다에서 조금 띄워 달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노를 잡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뱃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배 뒤편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멀어지면 가까이 가게 노를 저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말씀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보니, 잡힌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처음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전날 밤 베드로는 깊은 데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를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단과 연결되었기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가요?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때부터 인간은 사단하고 마음이 연결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마음이 연결되면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말하길 ‘결코 죽지 않고, 그걸 먹는 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뱀의 말을 받아들이느냐 두 길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뱀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뱀의 말 속에 들어 있는 유혹에 속아 뱀의 말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인간은 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뱀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사단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후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인간은 사단과 마음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 속에 자기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께 있는 평안, 사랑, 행복, 지혜가 흘러들어와서 인간이 더럽고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사단을 향하여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단의 마음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간 속에서는 악한 생각이 솟구칩니다. 음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있는데도 남의 아내가 더 예뻐 보이고,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상상을 사단이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발버둥쳐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은 수천 년 동안, 사단은 인간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최악된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였습니다. ‘네게 땅값을 감추게 한 것이 네가 아니라 사단

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사단의 직업입니다. 여러분이 잠만 자고 일어나면 악한 생각이 일어나고, 미운 생각이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 속에 그 마음들을 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죄와 싸워야 하고, 싸우다 넘어져서 범죄하고, 그러면 부끄럽고,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의 첫 단계, 다른 마음

그런 인간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아온 인간하고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하고 생각이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사단에게 이끌림을 받았던 우리가 예수님과 생각이 같을 리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노아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방주를 만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아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마귀가 생각을 넣었습니다.

‘비가 온다고? 비야 전에도 왔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지만, 인간은 ‘아니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아. 그렇게 많은 비가 오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노아야, 방주에서 뭐하는 거야? 답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비 안 오잖아. 어디에 비가 온다고 그래? 빨리 나와.” 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지났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인데 40일 동안 8000m가 넘는 산이 잠길 만큼 비가 왔으니까, 하루에 200m씩 비가 온 것입니다. 하루에 200m면 한 시간에 약 20m씩 물이 올라 갑니다. 제가 한번은 홍수로 물이 차오르는 걸 보았는데, 한 시간에 60cm 올라오는데 정말 빠르게 올라오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에 20m씩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인간을 이끌면서 죄를 범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마음의 세계를 심어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면 자기 마음과 너무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고 마음만 같아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가는데,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다. 네 아내 사래를 사라라 불러라. 네 아내 사라는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상에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는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난 못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운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으면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선과 사랑만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해 사단과 마음을 같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 하나님과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보다 더러운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어느 것도 인간의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맞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처음 부딪힌 문제가 무엇이였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거기는 고기가 없는데... 나는 여기서 자라고 고기를 잡고 살았는데,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어. 그런데 왜 거기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르지만, 실제로 말씀 앞에 서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난 아이를 못 낳아요. 나는 백 살이나 됐고, 내 아내는 구십 세예요. 사래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안 돼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얻겠네.’ 하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깊은 데가 아닌 다른 데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그물을 던졌지만 한 번도 깊은 데에 던져본 적은 없었습니다.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이 베드로의 경험이고 지식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누가복음 5:5)

지금까지 베드로가 수없이 그물을 던졌고, 전날 밤에도 그물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방법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했지만, 내 방법을 버리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변화를 입기 위해 40일 금식기도를 해야 하거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거쳤던 이 과정을 거치면 누구든지 놀랄 정도로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변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집회는 목요일날 밤에 마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도 이 과정을 거치면 목요일 밤에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면 “박 목사 말이 맞아. 내가 달라졌어. 이런 기쁜 마음을 갖기는 처음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 나 이제 새롭게 살 수 있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변했습니다.

생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사단은 우리 속에 다른 기준을 넣었습니다. ‘네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선해질 거야.’ 하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고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 주장을 고집할 것인가, 내 주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큰소리로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는다고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마엘

이나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고집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사라가 늙었지만 아들을 낳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사라가 단산했지만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으로 흐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옛날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은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병자가 말하기를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자가 너무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걷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자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렇게 말하는 저분이 누구야?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미쳤다고

여기 누워 있겠어? 나는 걸을 수 없어. 내 다리는 말랐어.’

그런데 그날 38년 된 병자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맞아. 나는 걸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걸으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걸어 보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병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놀랍게도 그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병자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 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라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 연결된 마음으로 사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사라에게 새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참 많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병에서 낫는 것도 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

우리는 이번에 베드로에 대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오늘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입니다.

다.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마음에 맞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그 말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만 말고 여러분에게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방언 받으려고 애쓰거나 성령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생각을 버리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38년 된 병자처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목요일 밤에는 죄에 얽매어 고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악하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담이 뱀의 말을 들어서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여러분은 반대로 사단을 따르던 데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